■ '과태료 폭탄'에 곤욕 치렀던 해남 주민들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마소"

"올 총선 돈 쓰는 후보 낙선운동"

"선거의'선'자도 꺼내지 마세요."

지난 2일 해남군 해남읍에서 만난 A씨는 4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꺼내놓자 손사래부터 쳤다.

A씨는 지난해 박희현 전 해남군수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심한 마음 고생을 겪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박 군수 측으로부터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5만원을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달여간 조사를 받았다"면서 "다행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제는 돈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면서 "선거법에 어두운 시골 주민에게 돈을 뿌리는 정치인은 찍지도 말고, 오히려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주민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장부에 돈을 전달된 것으로 기록돼있어 곤욕을 치렀다"며 "이후론 선거와 관련된 사람과는 물 한잔도 마시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주민은 "과거 해남지역 선거에서는 도의원에 출마해도 수 억원은 뿌려야 당선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많은 돈이 살포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해남군수 보궐선거를 지켜보니 이런 선거풍토는 거의 사라진 듯 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당시 부의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경북 청도군이 군수 선거와 관련된 금품 살포 때문에 난리가 아니던 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며 "대부분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 있는 시골 마을에선 관례적으로 경조사비 등이 오고가는 만큼 해남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B씨는 "돈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출마하기 힘든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정책과 인물 위주의 깨끗한 선거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철환 해남군의회 의원은 "깨끗한 선거 풍토가 안착되기 위해선 유권자보다도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역 유권자들도 소속 정당이 어디고, 돈을 얼마 쓰는가 보다는 지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돈 선거는 말끔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남군선관위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축의금 부의금 또는 야유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55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6명에 대해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외국인 근로자 즐거운 설맞이 3일 오후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설 맞이 외국인 근로자 민속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한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이 윷놀이 등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군대 안가려 어깨 탈구·고혈압 위장

운동선수 100여명 적발

현역 복무를 피하려 일부러 어깨뼈를 어긋나게 한 뒤 수술을 받거나 아랫배 등 특정 부위에 힘을 줘 고혈압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축구선수 등 100여명이 무더기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훼손시켜 4급(공익 대상) 내지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3일 K-1 리그 소속 정모 선수 등 9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적발된 사람은 K리그 소속팀 현역 정모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K-1 리그 15명과 K-2(실업) 리그 출신 35명, K-3(아마추어) 리그 출신 15명, 대학 소속 선수 및 일반인 27명 등이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축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왼쪽 어깨를 늘어뜨려 뼈마디를 어긋나게 한 다음 정형외과 의사 윤모(불구속 기소)씨로부터 관절경 수술을 받고 병사용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86명은 4급, 6명은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윤씨와 4급 판정을 받은 뒤 5급을 받으려 한차례 더 어깨를 탈구시킨 선수 등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선수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씨에 대해 "본인이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해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를 모집한 뒤 350만~500만원을 받고 고혈압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 김모(26·대학생)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통해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박모씨 등 16명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멀쩡한 왼쪽 어깨 망가뜨리고 연습 통해 의도적 혈압 올리기

■ 병역 회피 수법

일부러 신체를 훼손시킨뒤 현역복무를 피하려한 축구선수 등이 무려 90여명이나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체육계 등에 만연된 현역복무 회피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축구에 별 지장없는 왼쪽 어깨를 훼손하라"=병무청이 지난해 9월 정형외과의 윤모씨가 2006년 7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과다 발급해 수술 경위나 진단서 발급 과정에 의문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나섰다.

검찰은 윤씨가 어깨가 조금만 탈구돼도 쉽게 수술해주고 진단서를 내준다는 사실이 축구선수 사이에 '알음알음' 알려져 일부는 축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왼쪽 어깨를 일부러 탈구시킨 뒤 이곳을 찾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 중 11명은 이렇게 4급 판정을 받고 완전 면제 판정을 받으려 다시 어깨를 탈구시키고 재수술을 받았으며 3명은 '성공'했으나 나머지 8명은 첫번째와 다른 부위가 손상돼 '실패'하고 그대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속적인 연습으로 혈압을 높여라"=대학생 김모씨는 우연히 혈압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터득해 자신의 병역 급수를 낮춘 뒤 친구 등 3명과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병역 상담 카페를 만들어 현역 입영 대상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 350만~4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받고 16명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전수했다.

잠을 자지 않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등 특정 신체 부위에 힘을 주도록 하거나 혈압이 높은 발목에 혈압계를 차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혈압 올리기'에 능수능란한 이들 중 1명이 대신 혈압계를 차기도 했다. /연합뉴스

'헌신 사랑 어미개' 새 주인 찾아

쌍나팔

○…주인에게 버려진 뒤 목줄이 몸을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새끼들을 헌신적으로 돌봐 화제가 됐던 어미개〈본보 지난달 21일자 7면〉와 새끼들이 애견가들에게 분양.

○…3일 광주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장원초등학교에서 목에 목줄이 매여져 심한 상처를 입은 채로 구조된 어미개와 새끼 5마리 중 1마리를 제외하고 전부 새 주인들에게 분양.

○…어미개와 새끼 한 마리는 지난 2일 무안군의 한 애견가에게, 또 다른 새끼 두 마리는 광주 동부소방서 인근 주민, 한 마리는 경북 대구의 애견가에게 분양된 것.

○…새끼개 5마리 중 1마리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태며, 동물보호소 측은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을 통해 분양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24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7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범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영광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과다청구된 보험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계좌이체 받는 수법으로 김모(35)씨 등 13명으로부터 7천3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주모(45)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목포경찰서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라'고 속여 강모(66)씨 등 9명으로부터 8천1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주모(31)씨 등 4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조업체 거짓 광고 공정위, 무더기 적발

중도 해약시 납부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보람상조개발 등 1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100만원, 과태료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상조 등은 회사가 폐업해도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고 아산상조는 폐업시 고객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